

東京 나들이 四題

이경훈 본지 편집위원 · 普成社대표

오랜만에 동경나들이를 했다. 이번 나들이는 1986년 8월에 “어린이를 위해서 왜 쓰는가, 왜 읽는가”란 주제로 제20회 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대회에 참석한 뒤로 3년만의 동경나들이였다. 지난 10월22일부터 5박6일에 걸친 이번 여행의 의미는 서너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가 일본출판학회가 주최하고 일본 외무성 산하의 국제교류기금재단이 후원한 “東아시아문화권에 있어서의 출판개발과 교류”라는 주제의 포럼(10월23일~25일)에의 참석이다. 이 회의는 여섯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섹션은 “출판개발의 역사적·사회적배경-언어·학문·교육”이었다. 우리나라의 安春根은 「한국출판문화와 문자의 형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제2섹션은 “출판개발의 기술적 측면-편집·유통·저작권·뉴미디어”였다. 여기서 우리측의 韓勝憲은 「東아시아에서의 국제저작권의 재평

가-미국의 저작권정책과 개도국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이 발표에서 아직은 국제저작권조약의 권외에 있는 북한과 중국까지도 참가하는 아시아저작권협회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제3섹션 “출판개발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홍콩·영국의 세나라가 발표하였다. 제4섹션은 “출판개발정책-출판개발에서의 정부관여”였는데, 한국의 閔丙德은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과 출판개발」을 발표하였다. 제5섹션은 “출판개발의 연구와 실천”이었으며, 제6섹션은 종합토론으로 대단원을 이루었다. 이어진 일본출판학회 20주년 축하연에서 외빈을 대표하여 尹炯斗출판학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다음의 나들이는 간다 진보쵸(神田 神保町)에 즐비한 신간과 고서를 파는 서점가를 찾는 것이었다. 오전 11시경에 이미 이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매우 붐볐다. 나는 평소애 사고 싶었던 책 70여종을 미리 메모하여三省堂서점에 건네주

고 그 책을 골라놓으라고 부탁한뒤 오후 3시 약속한 시간에 다시 찾았으나 목록의 약 절반밖에는 책이 없어서 원했던 책을 다 구입하진 못했다. 위탁받은 서점의 재고기간이 짧기 때문에, 뒤늦게 사고 싶은 책을 신간서점에서는 사기 어렵다는 유통의 맹점을 실감했다.

다음의 나들이는 이미 20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일본도서보급주식회사’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이 회사는 전국공통도서권을 발매하는 회사이다. 지난해의 도서권 총발권액은 5백억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 도서총매상의 약0.3%에 해당한다고 한다. 선물을 통한 잠재독자의 발굴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동경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출판계의 3원로인 에구사 시로(江草四郎·有斐閣) 가네하라 시로(金原四郎·金原出版) 누노카와 가부자에몽(布川角左衛門·日本書協相談役)의 줄수(卒壽·90세) 축하모임을 구경했다. 일본 서적출판협회의 핫도리(服部) 이사장은 일본 출판계에 끼친 그들의 공로와 업적에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출판저널

통권 제 50호/1989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金芝媛 權正子 李權雨 洪賢濤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崔允源 李義天
崔炳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와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谷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慎鐘煥 | 安秉永 |
| 安輝濤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璵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龍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暎 | 鄭錫載 | 鄭丙圭 |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車河淳 |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崔錫庫 |
| 韓相震 | 韓勝憲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일금원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액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와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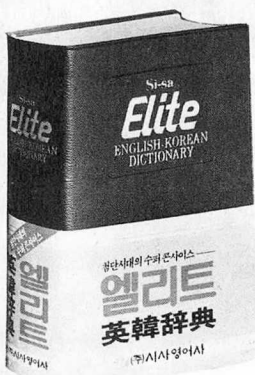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1월 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2호(12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



문제 1

조선 순조 때(1815년) 丁若鏞이 16년간 흑산도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으로, 근해 수산물의 이름과 분포·형태·습속 등을 기술한 책의 제목은?

1. 「牛海異魚譜」

2. 「玆山魚譜」
3. 「佃漁志」

문제 2

조선 초기의 학자 徐敬德은 “내 병이 위독하니 내 학설을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한 뒤 오랜 병석에서 일어나 「理氣」 「聲音解」 「字詞」 「銘」 등을 저술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1. 「大虛說原」
2. 「花潭集」
3. 「理氣死生鬼神論」

문제 3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독일철학가 니체의 초인관념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의 책이름을 그대로 딴 교향시를 작곡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1. 「비극의 탄생」
2.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3.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 4

흔히 비극적 인간형을 햄릿에, 희극적 인간형을 동키호테로 비유한다. 이는 “햄릿을 사랑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나 동키호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어느 러시아 작가가 문학강연에서 한 유명한 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작가는 누구인가.

1. 푸시킨
2. 투르게네프
3. 체홉

제48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8호(9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86통, 이중 정답은 8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燃藜室記述

태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29권 29책.

2. ③시문학

통권 3호(1931.10)로 끝났지만 한국 현대시의 시발점을 이루는 기틀이 됐다.

3. ①休靜(西山大師)

「禪家龜鑑」은 조선 명종 때 휴정이 지은 불교 개론서이다.西山은 휴정이 많이 머물던 묘령산의 별명인 西山에서 연유됐다.

4. ②후이념

「걸리버여행기」는 걸리버가 난장이나라 ‘릴리펫’, 거인나라 ‘브로브딩낙’, 공중에 뜬 섬 ‘라푼터’ 그리고 말의 나라 ‘후이념’을 거치면서 여러 기담을 얻고 돌아온다는 줄거리로 돼 있다.

당첨자

이재섭(서울·중랑구 면목3동 44-9-9, 21/2)

권재순(서울·구로구 독산2동 10-75-14)

박보현(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한림대학교 도서관 수서과)

박용자(인천시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113동 608호)

김관주(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2-14-162 14/5)